

믿음에서 믿음까지

성경말씀: 롬1:16-17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믿음과 은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히11:6).
믿음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제임스 나스의 성령의 열매 중 믿음을 중심으로 선포

기독교의 믿음(롬3:9-17)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엡2:8).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혹은 어떻게 생기는가?

롬3:9-10, believe

롬3:14-17,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듣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복음이 제시될 때 듣고 이해하고 설득을 당해 '믿습니다.'(believe) 하면 믿음이 온다(faith). 17절
여기서 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근원은 'believe하는 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인지하고 거기에 내 믿음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칼빈주의의 오류 ★★★

이러면 죄와 범법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다. 그러면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 ★★★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면 그 '내 믿음'은 영원할까? 그것이 견고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진 채 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 빌3:8-10,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의를 가진 채 발견되어야 한다.

내 의가 아니고, 롬3:21-22

내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막4:35-5:1)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갈 줄로 믿고 동의하고 배에 올랐다.

그런데 파도가 일고 죽게 되었다. 제자들이 의심하고 염려하였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40절) '약하나, 부족하나가 아니라 없느냐'이다.

이들이 배를 탈 때에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없어졌다.

그럼에도 5:1에 가서 보니 이들은 바다 건너편에 가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

제자들의 믿음은 동이 났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시종일관 충만했다.

제자들의 믿음은 그들을 배에 타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만든 것은
주님의 믿음이였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로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다. ★★★

하늘로 가는 도중 우리의 믿음은 흔들거리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비틀대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갈2:20). ★★★

믿음에서 믿음까지(롬1:17)

로마서 1:16-17 설명,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권능(power)이다.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다(고전15).

기관차 이야기: 엔진이 달려 있다. 객차들은 엔진의 파워로 인해 레일 위를 달릴 수 있다.

1. 우리의 영생도 이와 같다. 예수님이라는 기관차에 붙어 있으면 가능하다.

롬3:24-25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을 두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의 믿음을 그분에게 두면 기관차에 붙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의 믿음이 작동한다.

그분의 권능으로 죄들의 용서를 얻어 부활한다. 주님이 끌고 가는 곳에 갈 수 있다. ★★★

2. 의인은 믿음으로(믿음에 의해) 산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누구의 믿음으로 살까? 내 믿음 or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from faith to faith)' 계시되어 있다(17절).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일생이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여정이다.

믿음에서(from faith)의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킨다.

그런데 믿음까지(to faith)의 믿음은 바로 살기 위한 믿음이다.

구원받을 때 나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으로 그 이후의 삶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넣는 역할을 한다. 마가복음 4장의 경우를 보라. ★★★

우리를 보자: 믿은 이후에도 내 생각대로 혹은 내 믿음대로 산 날이 많았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갈5:22-25)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요, 속성이다. 이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충성으로 바꾸었다. 심각한 오류 ★★★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 주신 주님 자신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우리 주님이시다(히12:2).

히브리서 11장(믿음 장)의 영웅들은 모두 믿음에서 믿음까지 산 사람들이다.

구원받을 때 믿음: 우리의 믿음,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

시작할 때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갈2:22의 그리스도의 믿음 나이아가라 폭포의 다리 건설

케이블로 묶는 형태의 다리, 가는 줄 하나를 연에 매서 반대편으로 보냄. 그 뒤에 거기서 가는 줄을 이용해 무거운 줄을 보내고 보내고 해서 결국 다리를 건설함.

우리의 믿음도 비슷하다. 건너편에 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건너편에서 좀 더 강한 것을 달아서 보낸다. 이것이 일생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롬1:17)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영원히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다. 여전히 '너는 탐내지 말라'를 이루지 못한다.

탐심이 생기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그래서 내 힘으로 해 보려고 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마8:20).

그런데도 예수님은 만족하셨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빌4:11-12), 아브라함(히11:8-11), 모세(히24-26)

KJB 성경, 교회, 가정, 공부, 직장, 배우자,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한다.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이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성령님이 이런 믿음을 열매로 생산해 낸다(갈5:23-24).

어떻게 가능한가?(갈5:22)

삶 전체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통제 하에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데 육신에 이끌려 다닌다.

아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자. 아내가 아침 차려주고 옷 다려줄 것을 기대하는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의 육신은 미래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니 성령님의 통제 하에 있는가가 믿음의 삶의 핵심 요소이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아침마다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결론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으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가 확인하자. 히12:1-2, 하늘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